

韓醫學的 觀點에서 본 『胎教新記』의 胎教論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醫學古典研究所²

尹銀卿^{1, 2*}

A Study on 『Taegyoshin-gi』 from a Korean Medical Perspective

Yoon Eun-kyung^{1, 2}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Korean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deeper into the thoughts of Sajudang in her book on fetal education, Taegyoshin-gi(TGSG), published in the early 19th century Joseon, which focused on her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and bodily relationship the mother has with her child with comparison to Korean Medical texts.

Methods : The characteristics of TGSG were laid out with comparison to previous texts on fetal education of both China and Korea. After this, they were closely cross-examined with Korean Medical thoughts on human creation,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ind-body relationship.

Results : Sajudang's thoughts on fetal education as written in TGSG, show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father and mother's roles in it,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fetal education from just the mother to both father and mother. There is also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Heart that is at the center of the fetal education process, and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through blood.

Conclusions : Fetal education as discussed in TGSG expands from previous discourses on the topic, distinguishing itself with thorough understanding of how fetal education works, when it begins, and what the roles of the parents and the community are. This attributes to Sajudang's knowledge that came from both books and her actual experiences.

Key words : fetal education, Taegyoshingi, Sajudang, women's health, pregnancy

* Corresponding author : Yoon Eun-kyung.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02-961-9183, E-mail : yoonkiwi@gmail.com, lovejnj@gmail.com, lovejnj@jbnu.ac.kr

Received(January 29, 2018), Revised(February 08, 2018), Accepted(February 10,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1. 들어가며

태교는 태중의 아이에게 행하는 교육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훌륭한 아이를 낳으려는 노력이 바로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여겨졌기에, 전통사회에서 태교는 현대에서처럼 부모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시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의 태교와 관련된 내용은 의서뿐만 아니라 정치사상 및 철학 분야의 다양한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¹⁾.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시작점으로서 태교는 각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훌륭하다’는 말의 의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태교는 여성의 몸과 생활, 사회적 위치 등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이다.

조선후기의 태교전문서 『胎教新記』는 이사주당이 62세 되던 1800년에 집필했다고 추정하는 책으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태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태교의 주제와 내용을 확장했다는 평을 받는다²⁾. 실제로 『胎教新記』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행동이나 마음가짐, 섭생 등의 방면에서 어머니가 유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나, 그 외에 기존의 태교 담론과 차별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전까지 태교의 시기를 잉태 후로 보던 것과는 달리 잉태 전을 포함시켰다는 점, 그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을 설명하고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태교의 기전을 신체적 요소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전까지의 태교서는 잉

태 이후를 태교시기로 보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머니의 행동지침 위주였다.

이처럼 태교 시기의 앞당김이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태교의 기전에서 신체적인 측면의 작용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태교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발생과 생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 『胎教新記』에서는 각종 의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주당의 태교론을 살펴보면 인용한 부분 이상으로 생명과 몸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胎教新記』가 담고 있는 태교론을 의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사주당이 제시한 태교의 기전과 한의학 문헌 내용의 관련성을 들여다보았다. 이를 통해 『胎教新記』가 제시하는 태교론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주당이 이 책에서 담고 있는 태교론을 고찰해보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태교담론을 통해 이어져 온 태교론을 의학적 태교론과 비교함으로써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보다 전인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임상적으로는 태교의 구체적인 기전을 밝힘으로써 현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향

『胎教新記』는 사주당이 집필한 뒤 아들인 柳僖가 편집을 하고 諺解를 달아 1801년에 간행됐으며, 현재는 수고본의 유일본과 석판본이 전한다³⁾. 제목에서 전하듯 『胎教新記』는 당시에 전해지던 태교론에서 미진한 부분을 사주당이 평소 즐겨보던 유교경전의 내용과 자신이 직접 네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른 경험에 기반 하여 보완하고 새롭게 밝힌 기록으로, 저자가 여성이라는 점과 성리학적 가치를 태교라는

1) 이 자료에는 중국문헌으로 마왕퇴백서의 『胎產書』, 西漢시대 賈誼가 저술한 『新書』, 西漢시대 劉向의 『怨女傳』, 東漢시대 王充의 『論衡』을 비롯하여 『諸病源候論』, 『婦人大全良方』, 『格致餘論』 등과 같은 의서와 한국문헌으로는 정몽주의 어머니인 이씨가 저술한 『胎中訓文』, 조선 전기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가 쓴 『內訓』, 조선 후기 宋時烈이 저술한 『戒女書』와 『東醫寶鑑』 등이 있다.

2) 정혜은.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2009. 제 10집.

3) 수고본은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으며, 석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것은 아들 유희(유경)가 편집을 하고 언해를 단 수고본의 유일본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존경각 검어문고에 소장된 것을 1938년에 경북 예천에서 석판본으로 간행한 본으로, 韓國學中央研究院에서 발행한 韓國學叢書 가운데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몸으로 하는 실천에 녹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胎教新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학과 의학, 여성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교육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그것의 유학적 기반을 다룬 경우가 많았는데, 먼저 『胎教新記』 교육방법과 목표가 유학 교육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⁴⁾, 『胎教新記』에 담긴 솔선수범의 교육관에서 한국의 고유한 유아교육 내용을 살펴보았으며⁵⁾, 또한 태교가 연속성을 갖는 교육 과정의 시작점을 강조하기도 했다⁶⁾. 이들 연구에서는 『胎教新記』의 태교내용을 도덕성의 범주 안에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추구하는 교육의 사상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하지만 태교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태아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시간이므로 태교는 아이의 心身을 아우르는 교육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胎教新記』의 태교내용에 정서적인 측면과 생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나⁷⁾, 예방의학적인 내용과 교육학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아 신체적인 측면은 의학의 범주로, 신체 외적인 측면은 교육의 범주로 분리하여 보기도 했다⁸⁾. 또한 ‘부모로부터 형성되는 기질’의 의미를 유전학적 내용과 연관지어 ‘태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과거의 통찰이 오늘날 서구의 자연과학을 통해 입증되고 있음을 말한 연구도 있었다⁹⁾.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태교 내용 가운데 의식주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의 양육과 연결 짓고 마음가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과 연결 지으면서 心身의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는 간과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정(2009)은 『胎教新記』의 이전 태교서와 다른 독특한 면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의식주를 삼가는 이야기에 그쳤으나 사주당은 “이러한 삼감을 기꺼이 하기 위한 마음을 창출하도록 도덕적인 개인수양, 즉 ‘修身’을 요구했다”¹⁰⁾고 하며 행위를 하는 몸과 그 이면의 마음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으나 연구의 주요 논지가 아니었다.

사주당과 그의 저작을 보다 큰 사회적 맥락과 연결지어 『胎教新記』를 당대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저항하는 여성 실학자의 학문성으로 보는 여성학적 관점 또한 선행 연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었다. 정(2009)은 사주당이 태교 주체를 확장하고 단순한 행동지침을 넘어선 도덕적 수양을 핵심 지침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했으나, 여전히 남성주의적 가치체계 안에 머물러 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¹¹⁾. 이(2007) 역시 사주당이 『胎教新記』를 통해 태교의 실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대의 여성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으로써 조선조 여성 지성사에 방점을 찍은 실학자임을 주장했다¹²⁾. 그는 의서에 나타난 태교론 또한 언급했는데,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처럼 교육적 맥락에서의 태교와 당대의 사회분

4) 張瀾互.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胎教新記』의 태교론. 大東文化研究. 2005. 第50輯.
5) 최한수. 한국의 옛 유아교육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2002. 24(2).
6) 김병희. 전통태교의 특성과 교육적 위상. 아동교육. 2012. 21(3).
7) 정선년. 『胎教新記』를 통해본 胎教의 두 의미: 일상생활의 태교와 심신수양의 태교.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8) 김영철. 『胎教新記』에 나타난 ‘존심’과 ‘정심’의 교육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2005. 17(1).
9) 이경하.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胎教新記』-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 인문논총. 2014. 71(1). pp. 83-115.

10) 정해은.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2009. 제 10집. p.22.
11) 정해은.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2009. 제 10집. p.27. “사주당은 『胎教新記』에서 태교에 대하여 이전에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태도로서 철학적으로 면밀하게 파고들었다. 그 결과 사주당은 여성들에게 유교적 가치에 신뢰를 보내고 내면 화하라는 권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胎教新記』에서 만나는 여성의 역할과 몸가짐·마음가짐에는 사주당이 기꺼이 내면화한 성리학이 추구하는 남성 중심의 가치가 투영되었다고 여겨진다.”
12) 여성 억압 기제로서 열녀에 대한 사회적 추앙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19세기 초 조선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태교 전문서를 집필하고, 기존의 태교서와 달리 태교의 주체로서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책의 저자는 사주당이 ‘보호받을 존재로서의 임부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모성 위기를 초래한 것들에 대한 항변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혜순. 조선조후기여성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p.148.)

위기 속 저작의 의의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胎教新記』의 태교론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 태교가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실천임을 감안하면 『胎教新記』의 태교론에 대한 고찰은 그것의 사상적인 측면 외에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천으로서의 태교는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요한다. 먼저 사주당의 태교론은 어떤 생명관을 전제로 하는가? 즉,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나에 따라 태교의 시기, 성격, 주제, 그리고 각 주체의 역할이 정해진다. 또한 어머니와 태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태교가 일어나는 기전은 어떠한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몸을 중심으로 태교를 바라봄으로써 태교의 실천이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이라는 육체와 정신을 지닌 존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은 태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태교를 하는 당사자에게 보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胎教新記』의 태교론을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태교론과 비교 및 고찰함으로써 『胎教新記』가 다른 태교 문헌과 갖는 차별성을 논하고, 『胎教新記』의 태교론을 재평가하고자 했다.

3. 연구방법

『胎教新記』는 조선후기에 간행된 태교 전문 서적이다. 여기에는 고대부터 전해져온 동아시아의 태교론이 담겨 있으면서도 사주당의 독특한 시각이 녹아 있으므로, 『胎教新記』가 어떤 맥락으로 이어져 왔으며, 또한 사주당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만의 관점을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胎教新記』 이전의 태교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胎教新記』에 드러난 태교론에 대한 내용적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胎教新記』 이전의 중국과 한국의 태교서를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胎教新記』의 위치와 특징을 드러내고, 『胎教新記』의 태교론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의학 문헌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 의학적

측면을 주로 살펴보았다. 『胎教新記』의 원문은 韓國學中央研究院의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에 수록된 석판본을 저본 삼았으며, 그 해석은 박(2002)의 『譯註胎教新記』를 참고했다.

II. 本論

1. 『胎教新記』와 저자 이사주당

『胎教新記』의 저자인 李師朱堂 (1739~1821)은 영조 15년 청주에서 태어나 22살 연상인 柳漢奎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3녀를 두었다. 그는 출가하기 전부터 아버지 이창식의 격려로 학문을 닦을 수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四書三經을 공부했으며, 독서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그의 묘지명을 쓴 申緯의 기록과 사주당의 작은 딸에 의하면 경전 외에도 여러 종류의 서적을 읽었으며, ‘베짜고 깎싸하는 틈틈이 여가로’ 四書五經과 春秋를 읽었다고 한다. 또한 장녀에 따르면 사주당은 理氣性情의 학문을 넓히는데 관심이 있어 詩나 소설은 선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저서에도 반영되어있다¹³⁾.

사주당은 생전에 『小學』, 『家禮』, 女四書を 비롯하여 四書を 포함하는 유교경전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는 사주당의 저서로 알 수 있는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胎教新記』가 유일하나, 기록을 보면 『家語』, 『佳篇麗輯』, 『教子輯要』를 지었다고 한다.¹⁵⁾ 이 가운데 『教子輯要』는 아들 柳僖에 따르면 옛 성인의 행동거지 및 의학서에서 임산부의 금기를 뽑아 모으고, 경전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칠만한 금언을 말미에 덧붙여 우리말로 풀이한 책으로, 『胎教新記』보다 20여년전에 지어져 『胎教新記』의 전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¹⁶⁾.

13)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336.

14)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269.

15) 김민수. 柳僖의 傳記 및 柑製 試券. 새국어생활. 2000. 제10권 3호.

16)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331.

이처럼 독서를 좋아하고 학식이 깊었던 사주당은 글쓰기에 대해선 엄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성의 글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胎教新記』 외의 저서는 불태우라고 유언했는데¹⁷⁾, 이는 사주당이 조선후기 여성으로서 글쓰기에 대한 갈등을 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유일하게 남긴 『胎教新記』의 의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¹⁸⁾.

사주당이 『胎教新記』를 지은 시기는 그가 62세 되던 1800년도이다. 이 책은 전부 한문으로 쓰였으나, 원형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1801년도에 아들인 柳僖가 장구를 나누어 소제목을 달고 책의 말미에 언해를 붙인 본이 간행되어 현재까지 전해진다. 사주당이 지은 원형 그대로의 책 대신에 아들의 손을 거친 편집본이 전해지므로 현재의 『胎教新記』가 온전히 사주당의 생각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주당이 책머리에 밝히고 있는 책의 저술 동기와 아들이 발문에 밝힌 간행 동기를 살펴보면 원 저자의 의도에 반하는 측면이 없고 그 뜻이 통하기에 사주당이 『胎教新記』를 남긴 의도가 아들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2. 『胎教新記』와 기존 태교서 비교

1) 『胎教新記』 이전의 태교서

(1) 중국 태교서

태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의학 문헌으로 분류되는 마왕퇴백서의 『胎產書』²⁰⁾ 외에 전한시대의 賈

誼(B.C.200~B.C.168)가 저술한 『新書』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新書』의 『胎教』편에서 제왕에 대한 교육으로서 태교가 나오는데, 먼저 주역을 인용하여 태교의 원리를 밝히고, 어머니 될 사람의 자질이 중요함을 말하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易曰，正其本而萬物理，失之毫釐，差以千里，故君子慎始。春秋之元，詩之關雎，禮之冠婚，易之乾坤，皆慎始敬終云爾。素成，謹爲子孫婚妻嫁女，必擇孝悌世世有行義者。如是，則其子孫慈孝，不敢淫暴，黨務不善，三族輔之，故鳳凰生而有仁義之意，虎狼生而有貪戾之心，兩者不等，各以其母，嗚呼。戒之哉，無養乳虎，將傷天下。故曰素成，胎教之道，書之玉板，藏之金櫃，置之宗廟，以爲後世戒。

역에 말하기를 그 근본을 바로잡으면 만물이 다 스러지고 털끝만큼이라도 어그러지면 천리의 차이가 생기므로 군자는 시작을 조심한다. 『춘추』의 원년, 『詩』의 關雎, 『禮』의 冠婚, 『易』의 건곤은 모두 처음을 삼가서 마침을 공경히 한다는 뜻이다. 타고난 대로 이루어지니, 삼가 자손이 혼인을 하여 아내를 맞이하거나 시집을 보냄에 반드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대대로 의로움을 행한 집안을 선택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그 자손이 자애롭고 효성스러워 감히 방탕하거나 포악하지 않으며, 그 일가가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러 친척이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봉황은 태어나면서 인의의 뜻을 품게 되고, 호랑이는 태어나면서 잔혹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이 둘이 같지 않은 것은 각기 그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이니, 아 조심할 것이다! 호랑이 새끼를 기르지 말라, 장차 천하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타고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태교의 도이니, 옥판에 새기어 금궤에 넣고 종묘에 두어 후세에 경계로 삼을 것이다.²¹⁾

17)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346.

18) 정해은.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2009. 제 10집. pp.4-10.

19) 사주당은 책의 저술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283. “女範曰，上古賢明之女，有娠，胎教之方，必慎，今考之諸書，其法，莫有詳焉，自意求之，蓋或可知矣。余以所嘗試於數四娠育者錄爲一編，以示諸女，非敢擅自著述，夸耀人目。然猶可備內則之遺闕也。故名之曰胎教新記。”

跋文에서 아들 柳僖(초명 徹, 자 戒中, 호 西坡, 方便子)가 밝힌 간행 의도는 다음과 같다.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p.331-332. “夫養蒙聖功，自三日咳名以下，備見傳記，無庸五更添，獨腹中一教古有其事，今無其文，已累千年，巾幗家，曷從自覺而行之。”

20) 周一謀 著. 金南一, 印昌植 共譯.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p.448-449. “三月始胎，果隋宵效，當是之時，未有定儀，見物而化，是故，君公大人，母使朱儒，不觀沐猴，不食蔥姜，不食兔羹。□欲產男，置弧矢，□雄雉，乘牡馬，觀牡虎。欲產女，佩簪珥，紳珠子，是謂內象成子。”

21) 賈誼 撰. 閻振益, 鍾夏 校注. 新書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0. 賈誼 著. 박미라 譯. 한국학술진흥재단. 新書, 서울.

이 책에서는 태교가 이루어진 실례로 주나라 무왕의 后妃인 邑姜이 성왕을 임신했을 때를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 서한 시대의 학자 戴德이 집필한 『大戴禮記』에서도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周妃后妊成王於身，立而不跛，坐而不差，笑而不諛。獨處不偃，雖怒不罵，胎教之謂也。²²⁾

주나라 후비는 성왕을 잉태했을 때, 설 때 한쪽 다리로 비스듬히 서지 않았고, 앉을 때 어긋나게 앉지 않았으며, 웃을 때 떠들썩하게 웃어대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에도 쭈그러 앉지 않았으며, 비록 노해도 욕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태교를 이룬다.

태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아니나 이후 태교 담론의 원형이 되는 것은 전한시대의 학자 劉向(B.C.77~B.C.6)이 지은 부녀자 전기인 『烈女傳』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의 『周室三母』장에서 文王의 어머니인 太任의 임신기의 모범적인 행동거지가 묘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太任者，文王之母...太任之性，端一誠莊，惟德之行。及其有娠，目不視惡色，耳不聽淫聲，口不出敖言。能以胎教。²³⁾

태임은 문왕의 어머니로...태임의 성품은 곧고 성실하여 오직 덕으로써 행동하였다. 임신을 했을 때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음악을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녀는 태교를 잘 했다.

古者婦人妊子，寢不側，坐不邊，立不蹻，不食邪味，割不正不食，席不正不坐，目不視于邪色，耳不聽于淫聲。夜則令瞽誦詩道正事。如此則生子，形容端正，才德必過人矣。故妊子之時，必慎所感，感于善則善，感于惡則惡，人生而肖父母者，皆其母感于物。故形意肖

之。²⁴⁾

옛날에는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가로 눕지 않고, 자리 끝에 앉지 않았으며, 한쪽 다리로 서지 않았고, 바르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았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현란한 것은 보지 않았고, 음란한 음악은 듣지 않았다. 밤에는 눈먼 악관에게 시를 읊게 하고, 올바른 이야기만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자식을 낳으면 모습이 반듯하고 체적이 남보다 뛰어나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졌을 때 반드시 느낌을 신중히 해야 한다. 선하게 느끼면 아이도 선하게 되고, 나쁘게 느끼면 아이도 악하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 부모를 닮는 것은 모두 그 어머니가 밖에서 느끼는 것이 태아에게 전해진 까닭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모습과 마음이 부모를 닮게 된다.

『烈女傳』에 실린 太任의 태교기록은 이후 『小學』에서 거의 그대로 찾아볼 수 있으며, 『胎教新記』 서문에서 사주당이 인용하고 있는 『女範』²⁵⁾과 『胎教新記』 자체에도 수록되어 있다. 성군으로 이름난 文王으로써 그 효과가 검증된 太任의 태교방법은 왕실의 태교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태교 관련 문헌에서 '삼감'으로 대표되는 수양으로서 전해졌다.

(2) 조선시대 태교서

조선시대의 태교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烈女傳』의 태교론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烈女傳』의 태교론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말 정몽주의 어머니인 이 씨부인이 저술한 『胎中訓文』에 그가 옛 성현들의 행적을 언급하며 자신 또한 훌륭한 아이를 낳기 위해 어려운 행동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태교론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소명출판. 2007. pp.403-404. 재인용

22) 賈誼 著. 박미라 譯. 한국학술진흥재단. 新書. 서울. 소명출판. 2007. p.407.

23) 劉向 撰. 梁端 校注. 列女傳校注. 臺灣. 中華書局. 1972. 劉向 著. 李淑仁 譯. 列女傳. 서울. 예문서원. 1996. pp.53-56. 재인용

24) 劉向 撰. 梁端 校注. 列女傳校注. 臺灣. 中華書局. 1972. 劉向 著. 李淑仁 譯. 列女傳. 서울. 예문서원. 1996. pp.53-56. 재인용

25) 명대 왕상의 어머니 유씨가 쓴 『女範捷錄』으로 여자가 읽어야 할 네 가지 책인 '女四書' 중 하나이다.

26)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p.155.

조선전기의 태교 내용이 수록된 서적으로는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가 1475년에 편찬한 『內訓』이 있다. 이 책은 궁중의 妃嬪과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烈女傳』, 『女教』, 『明心寶鑑』, 『小學』의 네 가지 책에서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발췌하여 만들었는데, 여기에 실린 태교의 내용도 太任의 일화를 벗어나지 않았다²⁷⁾. 이후에는 왕세자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이상론을 현실화하려는 趙光祖나 李紱와 같은 사대부에 의해 태교가 『小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²⁸⁾. 여기에서 태교는 교육의 시작점으로서 강조되었는데, 이외에도 성리학에서 전제하는 사람의 淸濁과 純雜의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로서도 언급되었다. 성리학적 관점이 갖든 태교는 李珣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어 특히 『小學集註』에서 그가 재해석한 태교론이 드러났다²⁹⁾. 이처럼 훌륭한 아이를 낳고자 한 수양으로서의 태교가 사람마다의 기질 차이와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 논의되면서 태교가 목적으로 하는 인간상에 성리학적 가치가 투영되었다.

『內訓』 외에 태교내용을 싣고 있는 부훈서로는 우암 宋時烈(1607~1689)이 딸딸을 결혼 시키면서 훈계하기 위해 쓴 『戒女書』가 있다. 이 책에서는 어려서 가르쳐야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말하며, 그 가르침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의 행동거지에 달려있음을 말했는데, 그 내용이 앞선 태교서에 실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³⁰⁾.

조선전기와 중기 문헌에 나타난 태교는 이처럼 『烈女傳』의 태교론을 대체로 따르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의 시작점으로서 논의되었고, 이 때문에 점점 어머니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보다는 형이상학적인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태교론의 맥락에서 최초의 태교 전문서인 『胎教新記』가 19세기 초 사주당에 의해 집필되었다.

2) 『胎教新記』에 비추어 본 기존 태교서의 한계

(1) 여성의 실제적인 경험이 부재

사주당은 『胎教新記』의 책머리에 다음과 같이 저작 배경 및 의도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기존에 전해지던 태교서에서 사주당이 인식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胎教新記』가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女範³¹⁾曰, 上古賢明之女, 有娠, 胎教之方, 必慎, 今考之諸書, 其法, 莫有詳焉, 自意求之, 蓋或可知矣. 余以所嘗試於數四娠育者錄爲一編, 以示諸女, 非敢擅自著述, 夸耀人目. 然猶可備內則之遺闕也. 故名之曰胎教新記.³²⁾

『女範』에서 말하기를 옛 현명한 여인이 잉태함에 반드시 태교를 하여 몸가짐을 삼갔다하니, 지금 모든 글을 상고해 보아도 그 상세한 법을 전한 곳이 없어 스스로의 뜻으로 구하여보니 대개 혹 가치 알 수 있는지라. 내가 일찍이 네 명의 아이를 임신하여 낳고 기른 경험을 기록하여 하나의 편을 저술함으로써 모든 여인에게 보이니, 이는 감히 제멋대로 스스로 저술하여 사람들의 눈에 자랑하려 함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가치 「內則」에 빠진 걸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 하여 胎教新記라 한다.

사주당이 지적한 구체적인 태교법의 부족을 그는 자신이 네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른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했다고 말한다. 기존의 태교서가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써 삼감을 강조하면서도 태교의 주체인 여성의 직접적인 경험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인

27) 소혜왕후 한씨 저. 김종권 역. 新完譯 內訓. 서울. 明文堂. 1986. p.155.

28) 김성수. 조선전기 태교론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2014. 71(1). pp.65-73.

29) 김성수. 조선전기 태교론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2014. 71(1). p.70. "...人性을 天命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성리설과 관련하여 태교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율곡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태교를 성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0) 宋時烈 著. 金鍾權 譯. 新完譯 戒女書. 서울. 明文堂. 1986. p.206. "자식을 배었을 때도 잡된 음식을 먹지 말고, 기울어진 자리에 눕지 말고, 몸을 단정히 가지면 자식을 낳으면 자연히 단정할 것이다. 자식은 어머니를 닮는 사람이 많다. 열 달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었으니 어머니를 닮고..."

31) 『女範捷錄』이다.

32)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283.

데, 앞선 문헌들이 『烈女傳』의 내용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태교가 아닌 규범적 당위로서 태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 또, 사주당이 보완했다는 『內則』은 『禮記』의 편명으로, 결혼한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각종 예법이 수록되어 있으나, 태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즉, 당시의 여성들이 알아두어야 할 각종 법도가 수록된 경전에 태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주당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胎教新記』로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2) 태교 환경과 태아의 기질에 대한 고려 부재

『烈女傳』을 중심으로 계승되어 온 태교론을 살펴 보면, 그 시기가 임신 삼 개월째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임신 삼 개월은 태아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때로서 어머니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태아가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교론의 바탕에는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환경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어머니는 태아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어머니 또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산모의 환경이 되는 남편이나 가족 또한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주당은 『胎教新記』에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養胎者, 非惟自身而已也, 一家之人, 恒洞洞焉.³³⁾

태를 기르는 자는 오직 자기 스스로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사람이 항상 거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니

태아의 환경으로서 산모뿐만이 아니라 산모의 환경으로서 가족을 언급함으로써 사주당은 태교를 개인 수양론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태도와 실천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끌고나왔다. 또한 사주당은 태교의 시기를 임신 삼 개월째에 한정 짓는 대신 책

의 시작에서 性과 氣質을 논하면서 사람의 氣質이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잉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부모의 행실이 모두 중요함을 말했다. 부모의 행실에 따라 부여되는 氣質은 태아의 바탕이 되며, 어머니의 태교는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氣質이 형성되는 과정은 임신 후에 이루어지는 태교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성리학자들의 태교론과 흡사하나, 『胎教新記』가 유학 교육 이론서가 아니라 여성 독자의 실천을 염두에 둔 책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모체에서 일어나는 태교 이전의 氣質형성 단계의 ‘태교’에 대한 인식은 태교의 시기와 주체를 확장토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뒤에서 다루었다.

3. 한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胎教新記』의 태교론

『胎教新記』에 인용된 의서는 원나라 朱震亨의 『格致餘論』(1347), 危亦林的 『得效方』(1425), 명대 虞搏의 『醫學正傳』(1515), 李梴의 『醫學入門』(1575), 龔廷賢의 『壽歲保元』(약 17세기 초)이다.³⁴⁾ 사주당이 위의 의서를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東醫寶鑑』과 같이 여러 의서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실린 의서의 내용을 참고했는지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태교에 대해 논하면서 기존의 태교서와 달리 의학적인 내용을 참고했고 이를 본문에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胎教新記』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또한 『胎教新記』의 내용을

34) 崔三變, 朴贊國이 譯註書에서 인용내용과 출처를 밝혀놓았다. 師朱堂李氏 著, 崔三變, 朴贊國 譯解, 譯註 胎教新記. 서울: 성보사. 1991.

p.68. 4장 3절 必事見貴人好人, 白璧孔雀 (壽世保元)

p.81. 4장 7절 衣無太溫, 食無太飽, 不多睡臥, 須時時行步, ...勿涉險, 勿舉重, 勿勞力過傷, 勿妄用鍼灸, 勿妄服湯藥 (醫學入門) / 勿登高厠 (醫學正傳)

pp.96-97. 4장 12절 服酒散百脈 (得效方) / 驢馬肉無鱗魚, 難產, 麥芽葫蒜, 消胎, 芩菜蕎麥薏苡, 墮胎, 薯蕷旋菘桃實, 不宜子, 狗肉, 子無聲, 兔肉, 子缺唇, 螃蟹, 子橫生, 羊肝, 子多疳, 鷄肉及卵, 合糯米, 子病白蟲, 鴨肉及卵, 子倒生, 雀肉, 子淫, 薑芽, 子多指, 鮎魚, 子疳蝕, 山羊肉, 子多病, 茵藳, 子驚而夭 (醫學入門, 蕎麥 없음, 薯蕷旋菘桃實, 不宜子 없음)

p.121. 8장 1절 母得寒兒俱寒, 母得熱兒俱熱 (格致餘論)

33)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傳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295.

살펴보면, 의서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는 부분 외에 한의학적 태교론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胎教新記』의 여러 측면에서 내용 확장에 기여하고 있어 다음에서 밝혔다.

1) 태교의 대상인 胎

태교는 말 그대로 태아에게 행하는 교육이기에 그 대상은 배속의 아이이다. 기존의 태교서에서 태아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3개월째를 언급하며 이때에 특히 어머니의 행동거지나 마음가짐을 중시한 것도 잉태 후의 태아에게 행하는 교육으로서 태교를 상징한 것이다. 그러나 『胎教新記』에서는 태교의 시작을 더 이르게 본다.

人生之性，本於天，氣質成於 父母³⁵⁾

인생의 성품은 하늘에 근본하고 기질은 부모에게서 이루어지나니

이에 따르면 태교는 잉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생기기 이전의 부모로부터 시작된다. 아이의 氣質이 부모가 교합할 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주당의 인식은 한의학적 발생론과 유사한데, 먼저 『靈樞·本神』편에서는 神의 생성과 분화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생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天之在我者，德也，地之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者也。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³⁶⁾

하늘이 내게 드러나는 것이 德이고, 땅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氣이니, 德이 흐르고 氣가 합해져 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 오는 것을 일러 精이라 하고, 두 精이 서로 맞붙은 것을 神이라 이른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慾心과 私心이 없는 德과

땅이 드러나는 氣가 맞붙어 생명의 정수로서의 精이 생겨난다. 그리고 양분된 精이 맞붙으면 비로소 새로운 神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합으로써 설명한 내용이 『靈樞·決氣』편에 보인다.

兩神相搏，合而成形，常先生身，是謂精。³⁷⁾

양측의 神이 서로 맞쳐 합하여 形을 이루어 마땅히 몸에 앞서 생하니 이것이 이른바 精이다.

아버지의 陽神과 어머니의 陰神이 만나 몸이 갖추어지며, 그 생명의 원초적인 뿌리인 精이 자리 잡는다. 이렇게 자리 잡은 精이 다시 陽精과 陰精으로 분화한 뒤 相搏함으로써 생명의 독립적인 神이 출현하는 것이다³⁸⁾.

이처럼 『黃帝內經』에 나타난 발생론을 살펴보면, 생명의 탄생에 하늘과 땅이 기반이 되고, 부모의 精과 神이 만남으로써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몸을 가진 생명체, 즉 胎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胎教新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精’이나 ‘神’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성품이 하늘로부터 부여되며 그 바탕 위에 부모의 교합으로 인하여 기질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胎는 부모의 神이 만남으로써 그 생성이 시작되며, 부모의 神은 또한 각각의 陽精과 陰精이 맞붙어 이루어지기에, 결국 胎는 부모의 精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태교의 대상은 잉태 이후의 태아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되어 지나게 되는 精으로 확장되며, 이에 따라 태교의 시기 또한 잉태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리하여 『胎教新記』에서 말한 태교의 주체는 전적으로 여성이었던 것에서 아버지가 될 남성까지 확장되었다. 태아를 어머니의 행실에 수동적으로 영향 받는 고정된 대상으로 보는 대신, 그 기원으로 논의를 확장시킴으로써 태아의 발생에 빠질 수 없는 역

35)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傳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283.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8.

38) 安鎮熹 外.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제28권 1호. p.114.

할을 하는 아버지의 행실과 마음가짐 또한 대단히 중요해진 것이다. 『胎教新記』의 첫 장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父生之, 母育之 師教之, 一也.³⁹⁾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스승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의 맥락상에 있다. 그것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발휘되는 시기적 차이로 인하여 그 역할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먼저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다는 말의 의미를 수태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다음은 『婦人大全良方』의 내용이다.

人之無嗣, 或因丈夫陽氣之不足, 不能施化, 或因婦人陰血衰憊, 百疾攻之.⁴⁰⁾

사람이 후사가 없는 것은 혹 남자의 陽氣가 부족하여 퍼뜨리고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혹 여자의 陰血이 쇠약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얻은 것으로 인한다.

今婦人無子者, 率由血少不足以攝精也.⁴¹⁾

지금 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혈이 적어 精을 거두는 것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러하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에 대한 위의 설명에서 잉태를 위한 남성과 여성 각자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남성은 陽氣를 퍼뜨려 베풀고, 여성은 굳건한 陰血로서 남성의 精을 거두어 잉태가 되면 배속에서 열 달 동안 기르게 되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역할은 응축된 기운으로써 짧은 순간에 잉태를 주도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역할은 함께 잉태를 완성한 후 열 달이라는 기간 동안 몸속에서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다. 남성과 여성의 협력으로 아이가 생기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이 그 과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의 역할은 아이가 생기는 때에 가장 먼저 작용하고, 어머니의 역할 또한 아이가 생기는 때에 작용하지만 주로 그 이후 열 달의 기름 동안 작용하고, 스승의 역할은 아이가 태어난 후,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작용하는데, 뒤로 갈수록 아이의 性品과 氣質이 굳어지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적다. 그리하여 아이가 생기기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된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시기가 변화의 여지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에서도 드러난다.

師教十年, 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 未若父一日之生.⁴²⁾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열 달 기름만 못하고, 어미의 열 달 기름이 아버지의 하루 낳음만 못하다.

아버지가 낳는 하루가 아이의 氣質 형성에서 가장 가변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아버지의 태교는 어머니나 스승에 비해 그 기간은 짧더라도 비중이 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서 나온다.

夫告諸父母, 聽諸媒氏, 命諸使者, 六禮備而後爲夫婦, 日以恭敬相接, 無或以褻狎相加, 屋宇之下, 牀席之上, 猶有未出口之言焉, 非內寢, 不敢入處, 身有疾病, 不敢入寢, 身有麻布, 不敢入寢, 陰陽不調, 天氣失常, 不敢宴息, 使虛慾, 不萌于心, 邪氣不設于體, 以生其子者, 父之道也. 詩曰相在爾室, 尚不愧于屋漏, 無曰不顯, 莫余云觀, 神之格思, 不可度思.⁴³⁾

무릇 부모님께 고하고 매파에게 듣고 말기며, (혼례를 주관할 만한) 使者에게 명하여 육례를 갖춘 후에 부부가 되거든 날마다 공경으로써 서로 대하고 혹시라도 서로에게 허물없는 듯이 대하지 말며, 지

39)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284.

40)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4. p.11.

41)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4. p.2.

42)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284.

43)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p.285-286.

붕 아래와 평상 위에 단둘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이 있는 듯 하며, 안방이 아니거든 감히 머물지 아니하며, 몸에 질병이 있거든 감히 잠자리에 함께 들지 말며, 상복을 입었을 때거든 감히 안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陰陽이 고르지 않아 하늘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거든 감히 편히 쉬지 아니하여 허욕이 마음에 싹트지 않게 하며 邪氣가 몸에 붙지 않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이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방에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니 방의 서북쪽 구석에 있더라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알네.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날 보는 이 없다 말라. 신이 이르심은 예측할 수 없음이니⁴⁴⁾”라고 했다.

여기에서 남성에게 강조되는 것은 적법한 의례⁴⁵⁾를 지키는 올곧은 마음과 몸 상태, 때가 적절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고 虛慾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일로, 그 핵심은 ‘使虛慾, 不萌于心’으로서 요약될 수 있다. 사주당이 남성 태교의 핵심으로 언급한 헛된 욕심이 싹트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은 『醫學入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求嗣之理非玄微, 山無不草木, 人無不生育, 婦人要經調, 男子要神足. 男子陽精微薄, 雖遇血海虛靜, 流而不能直射子宮, 多不成胎. 蓋因平時嗜慾不節, 施泄太多所致⁴⁶⁾

후사를 구하는 일은 미묘한 일이 아니다. 산천에 초목이 없지 않은 것처럼, 사람에게 혈육이 없지 않으니 부인은 월경이 조화로워야 하고, 남자는 神이 충족해야 한다. 남자의 陽精이 적고 없으면 비록 넓

고 고요한 血海를 만나더라도 자궁으로 直射하지 못하고 흐르니, 대부분 잉태가 되지 않는다. 대개 평상시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방사를 지나치게 많이 한 까닭이니

아버지가 잉태를 주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陽精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절도 없는 방사를 삼가야 하며, 이는 마음의 욕심을 다스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아버지에게 있어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胎教新記』 본문에서 인용한 『詩經』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神이라는 초월적인 힘이 있기에 내 행동의 모습이나 결과는 예측하지 못한 때와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이나 규율로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성을 일컫는 것으로, 이로써 마음의 바름을 다시 강조했다.

2) 태교의 원리 및 기전

(1) 태하는 과정

기존의 태교론에서 태교가 일어나는 기전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內象成子’⁴⁷⁾, ‘外象而變’⁴⁸⁾, ‘外象而內感’⁴⁹⁾이 있었다. 말 그대로 산모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내면에 갖게 되는 象에 따라 아이가 변한다는 것인데, 태교의 원리를 요약하고 있다. 기질의 형성마저도 태교에 포함시킨 『胎教新記』에서는 태교

44) 詩經의 해석은 다음을 참조했다. 이기동 역해. 시경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p.638.

45) 신비의 혼례에는 무릇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인을 구하는 의례인 納采, 신랑 집에서 使者를 보내어 신부의 생모와 성씨를 묻는 의례인 問名, 家廟에 짐을 쳐 길조를 얻게 되면 여자 집에 알려 혼사를 정하는 納吉,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내는 納徵, 신랑 집에서 택일을 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부 집으로 보내는 請期, 신랑이 신부를 맞는 親迎의 육례가 있다.

46) 李梴. 醫學入門. 서울. 法人文化社. 2009. p.1461.

47) 『胎產書』의 내용이다. 주 20) 참고. 周一謀 著. 金南一, 印昌植 共譯.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p.448-449.

48) 巢元方 著.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177-1178. “妊娠三月, 名始胎, 當此之時, 血不流, 形像始化, 未有定儀, 見物而變...是謂外象而變者也.”

49) 孫思邈 著. 李景榮 外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8. “妊娠三月名始胎. 當此之時, 未有定儀, 見物而化. 欲生男者, 操弓矢, 欲生女者, 弄珠璣, 欲子美好, 類視璧玉, 欲子賢良, 端坐清虛, 是謂外象而內感者也.”

가 일어나는 전 과정, 즉 ‘胎’하는 과정을 비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夫木胎乎秋，雖蕃廡，猶有挺直之性，金胎乎春，雖勛利，猶有流合之性，胎也者，性之本也。一成其形而教之者，末也。⁵⁰⁾

무릇 나무는 가을에 태하여 비록 蕃廡하여도 오히려 곧게 뻗어나가는 성품이 있고, 쇠는 봄에 태하여 비록 굳세고 날카로우나 오히려 녹아 영기는 성질이 있으니, 태함은 성품의 본이요, 그 形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끝이 된다.

나무와 쇠는 각각 상반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나무는 무성히 우거지면서도 그 가운데 곧게 뻗어가는 성질이 있는데, 겉으로는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개의 성질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기능한다. 즉, 나무가 제대로 蕃廡하려면 곧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무들끼리 영기어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생길 것이다. 가지가 곧게 자라야 잎이 무성히 달릴 수 있으며, 나무가 곧게 자라면서 각자의 공간을 확보해야 무성하고 건강한 숲이 이루어질 수 있다. 쇠는 어떠한가. 쇠는 단단하고 또 예리하다. 그러나 높은 열을 가하면 녹아서 서로 영기는데, 덕분에 여러 종류의 쇠를 녹여 영기게 하면 더욱 강도가 높고 날카로운 합금을 만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 나무와 쇠에 각각 내재되는 것은 나무는 가을에, 쇠는 봄에 태하기 때문이다. 나무는 가을의 金氣를 받음으로써 곧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지니게 되고, 쇠는 봄의 木氣를 받아 녹아 서로 영키는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경우에는 가을을 나면서, 쇠의 경우에는 봄을 나면서 이루어진다. 나무와 쇠의 비유에 따르면, 태는 현대의 생의학적 상상력 상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과 같은 하나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같이 지속되는 기간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태의 기간은 성품의 근원이 된다. 즉, 태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성품의 바탕이 되거나 영향을 끼친다. 유학에서 사람의性は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주당 또한 이러한 관점을 견지했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마치 나무가 가을에 눈을 형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이 제대로 生長收藏 할 수 있는 성질을 내재화하는 것처럼, 태아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름을 받으면서 그 본래의 성질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성질을 기른다. 즉, 태함은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의 바탕 위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발휘되어 태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인 것이다.

(2) 어머니와 아이의 연결 관계

태교는 어머니와 아이가 신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기존의 태교 관련 문헌에서는 이 과정이 의서에만 국한되어 설명되는데, 『胎教新記』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子由血成而血因心動，其心不正，子之成亦不正，妊婦之道，敬以存心，毋或有害人殺物之意，奸詐貪竊妒毀之念，不使蘖芽於胸中，然後，口無妄言，面無歎色，若斯須忘敬，已失之血矣。妊婦存心。⁵¹⁾

자식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피는 마음에 인하여 움직이므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의 이루어짐도 또한 바르지 못하니, 임부의 도리는 공경으로써 마음을 앓혀 방심하지 않도록 해서 혹시라도 사람을 해치며 산 것을 죽일 마음을 먹지 말며, 간사하고 탐하여 도적질하며 시샘하며 휘말랄 생각이 가슴에 싹트지 못하게 한 뒤에야 입에 망령된 말이 없고 얼굴에 원망품은 색이 없으니, 만일 잠깐이라도 공경된 마음을 잊으면 이미 피가 그릇된다. 이것이 임부의 마음 가라앉힘이다.

자식과 어머니가 맺고 있는 관계, 또 이 관계에

50)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p.290-291.

51)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坡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p.302.

서 어머니의 마음가짐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사주당은 ‘子由血成而血因心動’으로 설명했다. 어머니의 마음상태는 ‘心動’으로 표현되고, 心의 움직임에 아이를 이루는 血이 응한다는 말에는 心의 정신작용과 心과 血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黃帝內經』에 엿보인다. 우리 몸에서 心은 ‘君主’⁵²⁾나 ‘生之本’⁵³⁾으로 표현되듯 五臟六腑를 통솔하고 생명의 뿌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心이 神이 머무는 곳으로서 정신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⁵⁴⁾ 정신작용의 주체로서의 心과 血의 관계는 心이 血脈을 주관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⁵⁵⁾, 『黃帝內經』의 여러 편에 걸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心이 血脈을 藏함으로써 神을 주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心의 정신작용이 血脈을 매개로 일어나는 것이다. 『素問·八正神明論』에서 神과 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2. “心藏神, 肺藏魂...”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9.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2. “心者, 神之舍也”
- 張介賓은 총체적인 정신작용으로서의 神은 心에 갈무리되어 있어 이러한 心의 작용으로 우리의 감정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張介賓. 『類經(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63. “神者, 陰陽合德之靈也, 二氣合而生人, 則血氣營衛五藏, 以次相成, 神明從而見矣. 惟是神之爲義有二. 分言之, 則陽神曰魂, 陰神曰魄, 以及意志思慮之類皆神也. 合言之, 則神藏于心, 而凡情志之屬, 惟心所統, 是爲吾身之全神也.”
- 心개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 상세히 나온다. 방정균, 이용범. 『黃帝內經』의 心의 概念과 藏象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0. 13(1). pp.269-303.
-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9. “心之合脈也”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5. “心藏血脈之氣也”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6. “心主身之血脈”
-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心藏脈, 脈舍神”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⁵⁶⁾

혈기는 사람의 神이니, 기름을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血氣는 神과 한 가지이며, 그 이유를 “心이 血을 생성하고 神을 저장하는데, 脈이 血의 본체이고 神의 쓰임이기 때문에 心이 脈에 합한다”고 설명했다⁵⁷⁾. 즉, 산모의 정신상태가 태아의 전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기전은 心의 움직임인 神의 작용에 의해 脈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血이 응하는, 心과 血이 이루는 축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에서 응하는 血은 누구의 血인가? 산모의 血과 태아는 어떤 관계인가?

腹子之母, 血脈牽連, 呼吸隨動, 其所喜怒爲子之性情, 其所視聽, 爲子之氣候, 其所飲食, 爲子之肌膚, 爲母者曷不謹哉.⁵⁸⁾

벋속의 자식과 어미는 혈맥이 매어 이어져 있어서 어미가 숨쉬며 따라 아이도 움직이므로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자식의 성품이 되며, 보고 듣는 것이 자식의 기운이 되며, 마시고 먹는 것이 자식의 살과 피부가 되니, 어미가 어찌 이를 삼가지 않으리오.

사주당은 산모와 태아의 긴밀함이 血脈의 연결에서 비롯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마음가짐을 비롯하여 어머니의 호흡과 감정상태, 접촉하는 외부 환경, 섭취하는 음식이 각각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血脈으로써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태아는 산모의 벋속에서 영양분을 비롯한 각종 기름을 받으므로 그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산모가 섭취하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태아는

-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56.
- 57) 清代 吳昆의 견해이다. 張繼有 外 4人.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1. p.66. “心生血而藏神, 脈則血體而神用, 故心合脈.”
- 58) 師朱堂李氏 著. 崔三變, 朴贊國 譯解. 譯注 胎教新記. 서울. 성보사. 1991. p.104.

血脈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산모의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 『胎教新記』에 나타난 태교론의 핵심이다. 이는 사주당이 제시한 다음의 비유에서도 드러난다.

夫獸之孕也，必遠其牡，鳥之伏也，必節其食，螺贏化子，尚有類我之聲⁵⁹⁾

무릇 짐승이 새끼를 배면 반드시 그 수컷을 멀리하고, 새가 알을 품을 때 반드시 그 먹줄을 줄이고, 과라가 새끼를 만들 때 ‘나를 닮으라’ 소리 하니

여기에서는 짐승이 새끼를 배거나 새가 알을 품을 때 취하는 행동을 언급하며 사람이 마땅히 태교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 수컷을 멀리하고, 먹을 것을 삼가는 행위 자체가 태교라는 것인데, 이는 어머니가 욕구를 절제하는 금욕으로서의 태교를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잉태 중에 어머니가 평상시의 외부와 맺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들을 삼가고 오롯이 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螺贏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로 언급된 여러 경우 가운데 螺贏은 수컷만 있어서 새끼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桑蟲을 잡아 나무에 붙여 놓고 공중에서 ‘나를 닮으라’고 7일 동안 하면 桑蟲이 과라의 새끼로 변한다고 한다⁶⁰⁾. 사주당이 직접 새끼를 낳지 않는 과라가 상충을 세뇌시킴으로써 새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포함시킨 데에는, 태교의 정신적 연대에 대한생각이 깔려 있다. 몸이 섞이지 않은 桑蟲의 경우에도 변화가 일어날 만큼 태교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긴밀하고 강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잉태 중에는 어머니가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관심을 돌려 태중의 아이와 心身으로 맺은 관계에 집중해야 하며, 이것이 태교의 바탕이자 기전이 된다. 몸으로 낳지 않는 螺贏의 경우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신체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자관계이니, 어머니의 마음가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일이 태교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III. 考 察

그간의 연구에서 사주당의 『胎教新記』는 우리나라 전통 교육관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태교가 술선수범함으로써 아동교육에 본보기가 되는 부모, 주로 어머니의 교육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또, 사주당이 조선 후기라는 가부장적 가치가 팽배했던 시기에 이 책을 집필했다는 면에 착안하여 저자의 입장과 『胎教新記』의 의의를 여성학적 시각에서 논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주당은 여성으로서 각종 경전을 섭렵하여 그 식견을 저술에 녹여낸 여성 학자이며, 사별한 남편을 따라 죽는 열녀에 대한 추앙이 극에 달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태교라는 실천적 지식이 담긴 저서를 내 결과적으로 어머니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강조해 여성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그의 저서는 기존의 태교론을 확장하여 남성을 태교의 주체로 끌어들이고, 주변 환경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여성 또한 주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말하여 여성만이 태교의 책임을 떠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사주당 태교론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태교’와 『胎教新記』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胎教新記』가 사주당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왔으며 실천을 염두에 둔 서적이라는 측면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았다.

『胎教新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교에 대한 사주당의 관점이 기존의 그것과는 다름이 분명하다. 氣質의 근원이 되는 부모, 잉태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태교 시기의 확장, 태교에서 마음가짐의 중요성, 血을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母子관계, 그리고 태교의 연속성과 같이 태교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주당의 태교 관점이 드러나는 이러한 내용은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본문에서 고찰했듯이, 이러한 이해는 한의학적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새로운 생명체인 胎가 이미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59) 師朱堂李氏 著. 崔三燮, 朴贊國 譯解. 譯注 胎教新記. 서울. 성보사. 1991. p.61.

60) 師朱堂李氏 著. 崔三燮, 朴贊國 譯解. 譯注 胎教新記. 서울. 성보사. 1991. p.61.

이나, 정신작용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또 생명의 속성이 연속적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黃帝內經』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생명의 탄생에 관한 사주당의 관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태교서와는 다른 사주당의 태교론이 이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이다. 사주당은 책의 가장 앞에 사람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사람의 성품이 하늘에 근본하나,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질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문에서도 밝혔듯, 『黃帝內經』의 精과 神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한의학적 발생론과 맥락이 닿아 있다. 태교의 대상이 되는 胎의 시작은 잉태 이후가 아니라 그러한 胎가 기원하는 부모에 있다는 관점인데, 즉 태교의 시기가 부모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精을 지니게 되는 때로 거슬러 올라감을 말한다. 태교의 대상이 확장되어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자연히 태교는 오로지 어머니의 책임이었던 것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포함하게 된다. 한의학적 발생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精이 相搏해야 하고,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잉태를 주도하는 아버지의 陽精이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잉태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보다 그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사주당은 교육에 있어서 ‘스승의 십년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열 달 기름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열 달 기름보다 아버지의 하루 낱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기르는가의 문제 이전에 어떻게 잉태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아버지는 태교에 있어서 단지 산모의 환경으로서의 주변인이 아닌,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이다. 사주당이 그의 책에서 精이나 神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 이러한 관점이 의학 문헌을 직접적으로 탐구한 결과는 아닐 것이나, 그의 태교론은 한의학적 발생론과 유사한 생명관을 전제로 하며, 이 때문에 사주당의 태교론은 한의학적으로 의의가 있다.

실제 『胎教新記』에서 발견되는 의학적 내용은 학

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보다는 사주당이 견지하는 관점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되어 있다. 즉, 그는 이론으로서 태교를 말하고 그것의 논리적 타당성을 의학적 이론으로써 밝힌 것이 아니라, 보다 경험에 기반 하여 태교론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유학이나 한의학 이론을 끌어왔다. 그가 책머리에서 밝혔듯, 그는 네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른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태교서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보완하여 태교에 관한 새로운 기록, 즉 『胎教新記』를 집필했다. 이전까지의 태교론을 자신의 경우에 적용해보고, 그 경험에서 얻은 식견으로 기존의 이론을 보완하여 다시 적용하는 實事求是의 태도로 태교에 임했던 것이다.

따라서 『胎教新記』의 태교론은 이론에 입각한 규범이자 행동지침으로서의 태교가 아니라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산지식이자 실천으로서의 태교를 말한다. 그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공감하여 실천에 이르도록 설득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가부장적 억압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주당 또한 당대의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 했을 것이기에, 이는 시대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며, 실증주의적 태도로 정리한 『胎教新記』의 태교론을 현대의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VI. 結 論

1801년도에 간행된 『胎教新記』는 이사주당이라는 여성이 저술한 태교전문서로서, 앞서 전해 내려온 태교론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태교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해 이론 위주였던 기존 태교서와는 달리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태교론과 차별되는 『胎教新記』의 특징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사주당의 태교론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태교를 잉태 후의 활동으로 보던 기존 시각과 달

리 사주당은 사람의 기질이 잉태 이전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태교의 시기를 앞당겼다. 이는 부모의 精을 胎의 시작으로 보는 한의학적 발생론과도 일맥상통하며, 이로써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역이었던 태교는 아버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잉태 후의 태교에 있어서는 태아의 직접적인 환경인 어머니의 환경으로서 남편과 가족을 이야기함으로써, 개인수양의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태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냈다.

2. 태교를 잉태 후의 활동으로 보는 시각은 태아를 고정된 대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사주당의 관점에 따르면 태교는 잉태 이전부터 시작되어 잉태의 기간 내내 일어나며, 이에 따르면 태교는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잉)태하고 있는 시간’ 자체이며, 이로써 아이의 성품이 이루어진다.

3. 태교는 주로 행동지침 위주로 전승되어 규칙의 나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胎教新記』의 태교론을 살펴보면, 태교의 핵심을 마음가짐, 즉 心에 두고 있었다. 이는 사주당이 心의 역할과 心과 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 내용은 한의학 문헌에 나오는 내용과도 통한다. 이미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心을 강조한 것은 그 유대가 신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긴밀한 것이며, 태교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4. 『胎教新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태교서에 담긴 내용을 싣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발생과 마음가짐의 중요성 및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태교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사주당이 여러 문헌에 박식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교에 實事求是의 태도로 접근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Chao YF original work. Zheng GD edit. Zhubingyuanhoulunxiao.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2.
巢元方 著.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 Chen ZM. Furenliangfangdaquan. Taipei. Wen Kuang Publishing Company. 1984.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4.
3.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eong 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4.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eong Yeongchu.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5. Jia Yi original work. Park MR trans.. Xinshu. Seoul. Somyeong Publishing. 2007.
賈誼 著. 박미라 譯. 한국학술진흥재단. 新書. 서울. 소명출판. 2007.
6. Korean Studies Research Council edit. Jinjuryussi Seopiryuheejeonseo.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7
韓國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7. Lee G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Notes on the Shijing. Seoul. Seonggyungwan University Press. 2011.
이기동 역해. 시경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8. Lee HS. History of Women Intellectuals of Late Joseon.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2007.
이혜순. 조선조후기여성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9. Lee SI translation and annotation. Nusishu. Seoul. Yeoiyeon. 1998.

- 이숙인 역주. 女四書. 서울. 여이연. 1998.
10. Li Chan. Yixuerumen. Seoul Bubin Publishing. 2009.
李槿. 醫學入門. 서울. 法人文化社. 2009.
 11. Liu Xiang original work. Lee SI trans.. Lienuzhuan. Seoul. Yemun Publishing. 1996.
劉向 著. 李淑仁 譯. 烈女傳. 서울. 예문서원. 1996.
 12. Queen Sohae original work. Kim JG trans.. Naehun. Seoul. Myeongmundang. 1986.
소혜왕후 한씨 저. 김종권 역. 新完譯 內訓. 서울. 明文堂. 1986.
 13. Sajudang Lee original work. Choi SS. Park C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Yeokju Taegyoshingi. Seoul. Seongbosa. 1991.
師朱堂李氏 著. 崔三燮, 朴贊國 譯解. 譯注 胎教新記. 서울. 성보사. 1991.
 14. Song SY original work. Kim JG trans.. Gyenyeoseo. Seoul. Myeongmundang. 1986.
宋時烈 著. 金鍾權 譯. 新完譯 戒女書. 서울. 明文堂. 1986.
 15. Sun SM original work. Li JR et al. edit and trans.. Beijiqianjinyafangxiaosh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8.
孫思邈 著. 李景榮 外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 Zhang JB. Leiji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0.
張介賓. 類經(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7. Zhang JY et al. Huangdineijingsuwenwuzhupingshi. Beijing. Zhongyiguijichubanshe. 2011.
張繼有 外 4人.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1.
 18. Zhou YM original work. Kim NI, In CS trans.. New Discoveries of Ancient Chinese Medicine. Seoul Bubin Publishing. 2000.
周一謀 著. 金南一, 印昌植 共譯.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19. Ahn JH et al. A Study on Benshen chapter of Lingshu.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1).
安鎮燾 外.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제28권 1호.
 20. Bang JK, Lee YB.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Heart and its Jangsang(藏象) in the Huangdineijing.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0. 13(1).
방정균, 이용범. 『黃帝內經』의 心의 概念과 藏象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0. 제13권 제 1호.
 21. Choi HS. Inquiries into Korean Traditional Child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Children's Education History. 2002. 24(2).
최한수. 한국의 옛 유아교육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2002. 24(2).
 22. Chung HE. Yi-Sajudang`s 『Taegyo-Shin`g i』, viewed from the `Prenatal care` discourse of Joseon Period. Woman and History 2009. 10.
정혜은.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2009. 제 10집.
 23. Chung SN. Two meanings of prenatal education in 『 Taegyosingi』 : Prenatal education in everyday life & prenatal education of the physical and mental makeup. Busan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2017.
정선년. 『胎教新記』를 통해본 胎教의 두 의미: 일상생활의 태교와 심신수양의 태교.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4. Jang JH. A study on the antenatal training theory of 『Taegyosingi(胎教新記)』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 education. Daedongmunhwa Research. 2005. 50.
張靜互.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胎教新記』의 태교론. 大東文化研究. 2005. 第50輯.
 25. Kim BH.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 and Topology of Prenatal Education. Children's Education. 2012. 21(3).
김병희. 전통태교의 특성과 교육적 위상. 아동교육. 2012. 21(3).
26. Kim MS. Yu Hee's Biography and Exam paper. New Korean. 2000. 10(3).
김민수. 柳僖의 傳記 및 柑製 試券. 새국어생활. 2000. 제10권 3호.
27. Kim SS. The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Antenatal Training Theories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Humanities. 2014. 71(1).
김성수. 조선전기 태교론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2014. 71(1).
28. Kim YC. The Educational Meaning of 'Serious Mind' and 'Right Mind' : An Interpretation of 「Taekyosinki」. Ethics Education Research. 2005. 17(1).
김영철. 『胎教新記』에 나타난 '存心'과 '正心'의 교육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2005. 17(1).
29. Lee KH. A Study of Taegyoshingi in Relation to the Nature vs. Nurture Debate -Comparing Traditional Taegyo Theory and Modern Genetics-. Journal of Humanities. 2014. 71(1).
이경하.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胎教新記』-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 인문논총. 2014. 71(1).